

무주반딧불축제 사전 행사 '인기'

반딧불이 신비탐사·가족과 함께하는 1박2일 생태탐험 조기 마감

무주군이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가족과 함께하는 1박2일 생태탐험'을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사전행사로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산골영화제(6.2~6.6.)가 열리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인터넷 예매 오픈과 동시에 모두 매진돼 인기를 실감케 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모습

무주군에 따르면 '반딧불이 신비탐사' 가능 인원은 1,200명, '1박 2일 생태탐험'은 20가족으로, 사)반딧불제작위원회에서 인터넷 예약접수를 시작한 16일 당일 오전에 이미 신청 가능 수량이 모두 소진됐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육성팀 배은숙 팀장은 "예약이 조기 마감인 만큼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면서 "9월 2일부터 시작이 되는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에서도 반딧불 신비탐사와 1박2일 생태탐험을 즐기실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반딧불 서식지로 직접 찾아가 살아있는 반딧불이의 신비를 관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반딧불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족도 부문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무주반딧불축제가 개최되는 9월 초는 늦반딧불이가 주로 활동하는 시기로 개체 크기가 크고 발광력도 좋아 탐사 재미가 크다.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포함돼 있어 기부를 하면 탐사도 즐길 수 있다.

'1박 2일 생태탐험'은 가족단위 방문객이 반딧불탐사와 목재문화체험센터, 구천동어사길 걷기 등 1박 2일간 무주에 체류하면서 축제와 자연과 경관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 무주 곳곳과 더불어 반딧불 축제 이모저모를 알차게 즐길 수 있

어 해마다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 될 예정으로, 생태환경, 문화, 예술, 교육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한편, 무주반딧불축제는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첫 선을 보인 이래로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 2년 연속 대표축제, 그리고 명예문화관광축제로서의 명예를 지켜왔으며 2023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무주=전문기자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협력'

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30일 군수실에서 K-water 용담댐지사(지사장 김세진)와 '문화예술거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문화예술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계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군의 문화예술거리 조성 연구용역과 사업 추진 △K-water의 진안 거리미술관 조성사업을 통한 문화예술거리 활성화에 대해 상호 의견 공유 및 협의 등이다.

현재 진안군은 거리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소재지 기능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거리 조성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며, K-water는 댐 지원사

업으로 지붕없는 진안 거리 미술관에 공모해 170백만원을 확보했다.

지붕없는 거리 미술관 사업은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사업을 추진하며, 읍내 거리미술 공모전 사업을 통해 일상의 거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변신 프로젝트로 진행 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두 사업을 통하여 시가지의 변화와 함께 읍내 상권의 활력있는 분위기 조성 등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은 "진안 문화예술거리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접근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의회 조례안 원안가결

장정복 의원 발의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그동안 군은 상위법령에 의해 의용소방대를 지원해왔으나, 의원발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조례로써 마련됐다. 또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해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정복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제1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개최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축제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10일간 열린다.

30일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계곡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회의를 거쳐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축제를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10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제1회 장수 쿨밸리(cool valley, 시원한 계곡) 페스티벌은 반안면 방화동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되며, 시원한 계

곡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공연 등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방화동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숲과 계곡을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으로, 특히 여름철 기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아 열대야, 폭염이 거의 없다. 또한 깨끗한 계곡을 따라 기암절벽, 다양한 수목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고, 캠핑장, 가족휴가촌 등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여름철 휴가지로 유명하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고원 농가맛집 '마이담' 음식 밀키트 출시된다

'지역 향토음식 활용 간편조리세트 상품개발' 공모전 최종 선정

진안군은 30일 관내 진안고원 농가맛집인 마이담(부귀면 소재)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지역 향토음식 활용 간편조리세트 상품개발' 공모전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1·2차 서면심사 및 3차 현장심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최종 4건의 상품이 선정되었다.

진안에서 선정된 메뉴는 '진안고원 시래기 등갈비찜'으로 군에서 2022년도에 진안고원 산골음식 실용화 컨설팅을 통해 5개월간 음식 전문가의 도움으로 개발한 메뉴이며, 농가맛집 대표의 솜씨가 더해져 탄생한 메뉴이다.

심사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지역의 특산품인 흑돼지와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시래기를 활용하여 고기의 특유한 쫄깃함, 시래기의 연한 식감에 매콤한 양념장을 더해 누구나 함께 즐길

해당 메뉴는 롯데마트, 프레시지, 진안군농업기술센터가 함께 협력하여 간편조리세트 상품으로 개발 되어 전국 롯데마트로 유통·판매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밀키트가 전국으로 유통되어 진안의 대표음식을 소비자들이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쁘고, 외식업소의 활력이 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희망진안 아이디어 제안 공모

진안군은 군정에 관심을 가진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3 희망진안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군을 발전시키고 군정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분야는 군정 전반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접수는 오는 6월 23일까지 진안군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진안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등의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부상금(금상 7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10만원, 노력 5만원)으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이 수여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 나서

전춘성 진안군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에 나섰다. 전 군수는 지역의 한 노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설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과 함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안전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토록 지도했으며, 사항의 경중에 따라 정밀안전진

단 또는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력을 관리하도록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군의 위험요소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라며 "주민들도 내 집과 내 주변의 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해 자율적 안전점검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호국보훈의 달 기념 초등학생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

진안군은 30일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실시한 초등학생 홍보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보훈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 표현을 주제로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했다.

총 9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보훈단체장을 비롯한 4명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수상작 4점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진안초등학교 6학년 우수현 학생 △우수상 진안초 1학년 김민상 △장려상 진안초 6학년 문소연 / 1학년 안효주 학생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한주 의원 발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보상 조례안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 대상에 관하여 인명, 임업, 어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신체 상해시 최대 500만원, 사망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